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소비자 신뢰지수 8개월만 최고 수준
- WSJ: 11월 미 주택 판매 7.7% 감소...10개월 연속 하락
- Bloomberg: 이코노미스트들, "내년 미 경기 침체 가능성 70%"
- WSJ: 백악관, 노동 참여율 늘리려 유인책 검토
- WSJ: 미 농장 지대 50년만 최고 호황...농산물 가격 상승 탓

### [팬데믹]

- Bloomberg: 중국의 코비드 '폭발'로 미국은 새로운 변이 우려

### [부동산]

- Bloomberg: 미 최근 임대료 인플레이, 빨리 둔화중이다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美의회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면밀히 감시할 것"
- 한경: 머스크, "트위터 후임자 찾으면 CEO 사임할 것"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나이키, 재고 정리 성공...주가 급등
- CNBC: FedEx, 10억 달러 추가 절감 계획...글로벌 수요 감소 탓
- CNBC: 연방 우체국, "2028년까지 6만6천대 전기 배송차 도입"
- CNBC: 테슬라 주가 폭락 설명 애쓰는 머스크..."거시경제 요인 탓"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Consumer Confidence Jumps to Highest Level in Eight Months**

#### **미 소비자 신뢰지수 8개월만 최고 수준**

- 이번주 수요일 발표된 The Conference Board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11월 101.4에서 이달 108.3으로 예상보다 올라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소비자들의 향후 6개월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A measure of expectations)는 82.4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2월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021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과 가전제품 구매 계획은 감소했고, 차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 한편 미 소비자들이 현재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한 비중은 47.8%로 늘었고, 향후 6개월 내 더 많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사람의 비율도 증가했다.

## Bloomberg 기사

**WSJ: U.S. Home Sales Dropped 7.7% in November, a Record 10th Straight Month of Declines****11월 미 주택 판매 7.7% 감소...10개월 연속 하락**

- 미 전국 부동산업자협회의 이번 주 수요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7.7% 감소했다. 이는 10개월 연속의 기록적인 하락 세로 올해 1월 수준에서 37% 떨어져,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이다.
- 이러한 급격한 주택 시장의 침체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주택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 11월 기존 주택 가격 중위 값은 37만 7백달러로 1년 전보다 3.5% 상승했는데, 6월 사상 최고치인 41만 3천8백달러에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 WSJ 기사

**Bloomberg: Economists Place 70% Chance for US Recession in 2023**  
**이코노미스트들, “내년 미 경기 침체 가능성 70%”**

-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도 침체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어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수요도 향후에 타격을 입고, 인플레이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12일부터 5일간 설문 조사에 답한 결과 11월의 65% 침체 가능성이 70%로 늘었다고 답했다. 38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의 답변이다.
- 예상 중간 수치는 내년에 국내 총생산이 0.3% 증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내년 2분기에 0.7% 감소하고, 1분기와 3분기에는 변동 없는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내년 하반기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Bloomberg 기사

**WSJ: White House Looks at Benefits to Lure Americans Back Into Workforce****백악관, 노동 참여율 늘리려 유인책 검토**

-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더 많은 미국인들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일자리

를 찾는 성인의 비율이 줄어들며 어떻게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유급 가족휴가, 공립 유치원, 아동세액공제 영구 확대 등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한편 미국인의 노동 참여는 팬데믹 기간의 최저치보다는 회복되었으나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고르지 못한 상황이다. 행정부는 젊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일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보육 혜택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WSJ 기사

### WSJ: High Commodity Prices Feed a Boom in the U.S. Farm Belt 미 농장 지대 50년만 최고 호황...농산물 가격 상승 탓

- 농작물과 가축, 밀, 우유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농장 지대가 50년만에 최고의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미 연방 농무부가 12월 발표한 주요 농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 농가의 순수입은 물가 상승에 힘입어 1천 6백 5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73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지난 10년간의 농업 불황으로부터의 급격한 회복을 의미한다.
- 이에 종자 및 살충제 공급업체인 Corteva, Bayer AG, 트랙터 및 농작물 수확기 판매 업체인 Deere & Co. 등 농업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들 역시 '황재'를 거두었으며, 올해 미국 평균 경작지 가격은 2021년보다 14% 증가해 에이커당 5천50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한편 농무부는 사료에서 연료에 이르는 농업 생산비용 역시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산비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올해가 농장 소득의 정점이 되고,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 [팬데믹]

### Bloomberg: China's Covid-19 Outbreak Has US Worried About New Variants

#### 중국의 코비드 '폭발'로 미국은 새로운 변이 우려

-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코비드 봉쇄령 완화에 대한 여파에 대응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현 봉쇄령 완화 정책이 새로운 변이를 만들지 몰라 우려하고 있다.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사태를 보면서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퍼져서 어느곳에서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중국 도시들에는 코비드 감염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산당이 서구보다 감염을 잘 통제 할 수 있다 수년동안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실제 피해 규모를 숨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부동산]

#### Bloomberg: US Rent Inflation Is Slowing Fast in New Index Built by Fed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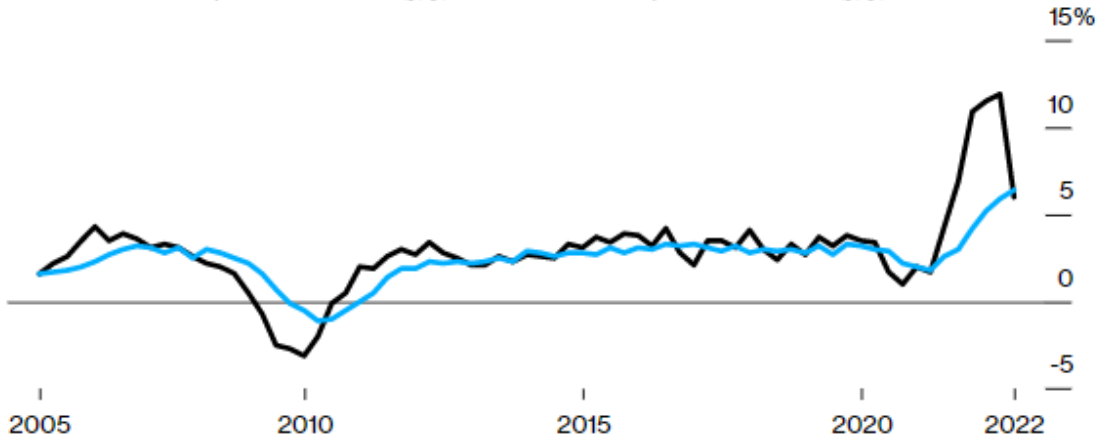
미 최근 임대료 인플레이, 빨리 둔화중이다

-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오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는 공동으로 최근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임대료와 모든 세입자들의 평균 임대료를 비교했다.
- 이에 따르면 새로운, 최근의 세입자 임대료 지표가 피크 수치에서 12%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Two Measures of US Housing Costs

Gauge based on new tenants suggests cooler housing market will soon show up in official inflation data

／ New Tenant Repeat Rent index (y/y)    ／ All Tenant Repeat Rent index (y/y)



Source: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기사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美의회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면밀히 감시할 것"
- 한경: 머스크, "트위터 후임자 찾으면 CEO 사임할 것"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Nike surges after results top expectations and retailer shows inventory progress****나이키, 재고 정리 성공...주가 급등**

- 나이키가 이번 주 화요일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과 함께 대량의 재고를 정리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올랐다.
- 나이키는 전년 동기 113억 6천만 달러 대비 17% 증가한 133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4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93억 달러였다. 나이키는 재고 과잉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진행했고, 총 마진이 전년 45.9%에서 올해 42.9%로 줄었지만 재고는 전 분기보다 줄이는 데에 성공했다.
- 나이키는 도매 업체로부터 벗어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략을 채택해 브랜드의 디지털 멤버십 플랫폼에 투자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25% 증가하는 등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 한편 나이키는 지난 3분기 동안 다른 소매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재고 문제, 소비자 수요 증가, 예측 불가능한 운송 기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CNBC 기사

**CNBC: FedEx plans more cost cuts as soft demand hurts profits****FedEx, 10억 달러 추가 절감 계획...글로벌 수요 감소 탓**

- FedEx가 이번주 화요일 수요 감소로 분기 수익이 감소한 후 향후 10억 달러의 추가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적 경제 불황을 앞두고 항공기 11대의 추가 운항 중지와 일부 사무실을 폐쇄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FedEx는 이번 조치로 2023년 회계 연도의 총 절감액이 37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FedEx는 올해 들어 미국 국내선 운항시간을 6%, 국제선 운항 시간을 7% 줄인 바 있다.
- FedEx는 Express 부문에서 영업 이익이 작년 대비 64% 감소하는 등 특히 취약한 실적을 기록한 만큼 주요 감축 대상이 될 예정이다. FedEx Ground는 전년 대비 24%, FedEx freight부분은 32% 증가한 영업 이익을 기록했다. FedEx의 주가는 올해 약 36% 하락한 상황이다.

CNBC 기사

**CNBC: U.S. Postal Service to transform delivery fleet with 66,000 electric vehicles by 2028**

## 연방 우체국, “2028년까지 6만6천대 전기 배송차 도입”

- 이를 위한 전기용 배송트럭 도입에 96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 이같은 전기차 도입 정책은 환경보호단체들이 가솔린 배송트럭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연방우체국은 노후된 배송 트럭이 22만대이다. 우체국 직원들은 주 6일간 1억6천3백개의 주소에 우편물과 소포를 배달하고 있다.

CNBC 기사

## CNBC: Elon Musk tries to explain why Tesla shares are tanking 테슬라 주가 폭락 설명 애쓰는 머스크...”거시경제 요인 탓”

-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화요일 52주만에 최저치를 경신해 주당 138달러를 기록한 테슬라 주식 폭락을 “거시경제적 요인 탓”이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에서 현금으로 돈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주식이 하락한다는 것.
-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다른 대형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4월 머스크가 트위터를 구매할 계획을 발표한 후로 59% 떨어졌는데, 포드는 26%, GM은 12%, S&P 500 지수는 14% 하락했다.
- 분석가들은 높은 금리가 테슬라 주식 하락의 일부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트위터 인수와 관련 머스크가 수십억 달러 주식을 더 팔겠다고 밝히는 등의 요인이 주주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인 EV 수요 감소와 중국 경제 불확실성도 테슬라에게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빌 그로스 "연준, 금리 계속 올리면 금융 카오스 유발"

세계적 자산운용사 핼코를 창립한 빌 그로스가 지속적 금리 인상시 금융시장은 '잠재적 대혼란'(potential chaos)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로스는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의 '하프타임리포트'에 출연해 "경제가 수조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출의 부양을 받았지만 결국 재정을 다 썼고 약한 침체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가 계속 오르면 약한 침체 이상이 올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잠재적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